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원산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권오태 |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원산지 관리 담당,
원산지관리사



권오태

-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원산지 관리 담당
-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019년도 7월, 자동차 부품사 10곳 중 4곳이 공장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포털사이트를 점령했다. 이는 원가 절감을 위한 부품사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협력사가 해외투자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사나 최종수출자 입장에서 결코 나쁜 옵션이 아니다. 다만 나비효과라고 했던가. 생존을 위한 작은 날개짓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 산업계가 당면한 FTA 원산지 관리와 관련된 이슈와 그 원인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원산지 관리 업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현업에서 원산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종종 말한다. 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업무를 맡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어째서 이런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들리게 된 것일까? 여기에 현업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되는 레퍼토리를 소개해 본다.

“원산지 업무는 회사에서 그닥 관심이 없어요.

업무 좀 제대로 해보려해도 다른 (주요)업무 대응하기 바쁘고 막상 다른 업무를 하면서 원산지 업무를 하기엔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라 쉽게 엄두가 안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은 없고 업무는 무겁고 부담되는데 회사에서는 책임만 지우려하니 결국 도망(퇴사) 말고는 답이 없네요“

상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다.

첫째, FTA 업무가 기업내에서 실질적인 매출과 직결되는 업무로 인식되지 않는다.

둘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대비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과 책임이 크다.

(업무 부담 高)

셋째, 담당자만이 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유관부문과의 연계성 高 / 인프라 중요)

과거에는 FTA를 고객사나 최종수출자에 대한 서비스 대응 수준의 업무로 인식해오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기업 내 FTA 업무의 위상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 부품사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고객사들도 생존을 위해 FTA 적용 가능 여부에 따른 실익을 업체선정 시점부터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품사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되는것과 기업 내 원산지 업무의 위상이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부품사의 해외진출과 원산지 관리 업무의 상관관계



고객사나 최종수출자 입장에서는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한 업체들의 해외 러쉬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다만 FTA 업무의 특성상 하위 품목의 원산지 지위가 최종 부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핵심 공정이나 부품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 지위 변동에 따른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비효과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큰 관세 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역내산을 하락에 따른 검증 리스크 역시 과거 대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역내산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던 주요 품목들의 원산지가 역외산으로 뒤바뀌는 순간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 될 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산업 전반의 원산지 관리 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다.

① **업체 선정 단계부터 부품별 원산지 지위에 대해 고려하게 됨에 따라 기획 업무의 특성 확보**

▶ 단순히 데이터를 취합하던 수동적 업무에서 업체 선정 단계부터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지는 능동적 업무로의 진화

② **원산지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 공유**

▶ FTA가 고객사나 최종수출자/협력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업무 중요도 상승

③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기업 내 위상 강화에 따른 업무 연속성/안정성 확보**

▶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

이는 자연스럽게 통상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FTA가 글로벌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업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FTA 부문의 국가 공인을 받은 원산지 관리사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원산지 관리 지원 제도에 관한 제언



앞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FTA 측면에서 몇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기술했다.

이번 챕터에서는 원산지관리사들을 활용하여 기업에 도움을 주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기업 내 원산지 관리사/실무사 채용 시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통한 유인 강화

직수출 비중이 낮은 업체들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원산지 업무에 대한 관심이 낮다. 하지만 직수출이 없는 업체라 하더라도 연관산업 내 원산지 관리에 있어서 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관심도가 낮은 협력업체들로 인해 많은 고객사나 최종수출자들의 검증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검증 대응 실패는 개별 기업의 페널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 훼손에 따른 전방위적인 여파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업체에서 원산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관리사는 기업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할 때 자격 기본법에 따라 인정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 기업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 산업군에 포진된 원산지 관리사들의 효용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제도(ex.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등)가 마련된다면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원산지 업무를 수행하며 특혜를 유지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원산지 지위 사전 검토/판정 제도 활성화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와 비슷한 컨셉으로서 업체가 판정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지위의 적정성을 국가차원에서 점검,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직수출은 없지만 수출기업으로 납품을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고객사와 협력사

모두 검증 리스크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2018년도에 각 본부세관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스마트 팩토리 지원 강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초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BOM을 관리하는 정도거나 단가 정보나 수불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엔 사실 원산지 판정 시스템이 수준급으로 갖춰져 있다고 한들 기초 데이터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엉뚱한 결과가 도출되곤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지원제도**가 확충된다면 다방면에서 업무 효율이 개선됨과 동시에 FTA 측면에서도 높은 정합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019년도에는 각 지역 본부세관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판정서비스 실시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 (생산 및 자동화 시스템 지원 등)



FTA 원산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활용없는 FTA에 따라 오는 원산지 관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떨어지고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판정과 검증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혜 적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지위에 대한 고민 없이 생산지/소싱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서브품목의 원산지 지위를 기반으로 원산지 지위가 결정되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금번 칼럼이 원산지 업무를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친다.

